창사 68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개관기념 특별할인!
품격있는 도심속 프리미엄 추모공간
(재)메모리힐즈추모공원
www.memoryhills.kr

제9243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35 SINCE 1991 kjdaily.com
2026년 9월 1일 화요일 (음력 7월 20일)

‘의대 없는’ 전남 서남권 의료 공백 해소 ‘새 불씨’

전남광주시, ‘대학병원급’ 언급…방안 아직
목포 정치권 “대체의료 인프라 확충” 촉구
송하철 목포대 총장 사의 표명 “대책 시급”
무안군·의회도 “생명 직결” 입장문 잇따라
거점병원 설립·필수의료 확충 등 과제 산적

막 오른 전국상업경진대회…고교생들 진로체험 제16회 전국상업경진대회가 개막한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여대 체육관에서 참가자들이 간호체험을 하고 있다. 대회는 교육부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상업계열 학생 경진대회로 회계실무·창업실무·ERP·금융실무 등 경진 12개와 경제 골든벨·창업동아리 엑스포 등 경연 4개까지 총 16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조영권 기자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가 선정되면서 목포·무안 등 서남권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관련기사 4·11면

국립목포대 의대 유치를 36년간 추진해온 지역에서는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서남권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학병원급 중증 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 거점병원을 비롯해 필수·공공의료와 의학교육·연구 기능을 확충해 지역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30일 전남연구원 심사를 거쳐 순천대를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으로 선정하고 교육부에 추천하기로 했다. 정부의 최종 승인과 의대 정원 결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목포대와 지역 정치권은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지역민들에게 사과하고 서남권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와 전남광주특별시 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과 강성휘 목포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목포시의회 의원 등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 “목포대 의대 유치 무산에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특별시가 약속한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이행해 목포대와 목포시에 대학병원급 중증 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필수·공공의료, 의학교육·연구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립의대 후보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강조했다.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은 31일 의대 유치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부와 특별시에 서남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송 총장은 “국립의대 후보 대학에서 제외된 전남 서부권의 의료공백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필수·중증 의료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군도 서남권 의료 공백이 국립의대 입지 선정만으로 해소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날 입장문에서 목포대 탈락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립순천대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설립된다고 해서 서남권 주민들이 오랜 시간 감내해온 필수의료 공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서남권은 분만·응급의료 취약지역인 데다 도서 지역이 집중돼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이 어렵고 치료 가능 사망률도 높다”며 “주민들이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병원급 중증 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 거점병원과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무안군의회도 성명을 통해 “36년간 이어온 서남권 주민들의 국립의대 유치 노력이 1.3점 차이로 좌절됐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통합 이후 의료·경제 분야가 동부권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군의회는 단순히 병상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목포대에 의생명 연구 기능을 배치하고 순천대 국립의대와 공동교육·연구 기능을 구축하는 등 서남권 의료 지원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무안청사의 핵심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무안 국가산단 조성 등 지역 균형발전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에서도 서남권을 배려한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경쟁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책임과 상생의 시간”이라며 서남권의 아쉬움과 상실감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결국 국립의대 후보 대학 선정으로 36년간 이어진 유치 경쟁은 일단락됐지만, 전남의 의료 격차 해소라는 본질적인 과제는 이제부터다.

순천대 의대·대학병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목포·무안 등 서남권에도 대학병원급 중증 진료가 가능한 지역 거점병원과 필수·공공의료, 의학교육·연구 기반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기수희·목포=정해선·무안=김상호 기자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지원계획·재원 분담 ‘투트랙’ 속도

市·무안군, 오늘부터 실무 협의
이달 초안 마련·지원위 심의 추진
6천400억 부족분 확보 최대 쟁점
11-12월 최종 이전부지 확정 목표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가 무안군 망운면 일대로 선정되면서 후속 절차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과 1조원 규모의 재원 분담 논의가 동시에 추진된다.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9월1일부터 무안군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록을 구체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나선다.

지원사업은 무안군이 제시한 요구사업을 중심으로 목록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국방부와 세부 내용을 조정하게 된다.

사업은 소득 증대, 사회간접자본(SOC), 복지, 주민생활지원 등 분야별로 분류될 예정이며, 무안군은 태양광을 비롯한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시는 무안군과의 협의를 거쳐 9월까지 지원사업 목록과 지원계획 초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안이 마련되면 실무회의를 통해 사업별 지원 규모의 적정성과 특정 분야 편중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와 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지원사업 목록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국방부·국무조정실과 지원위원회 개최 일정도 협의할 예정이다.

특별시는 이르면 9월 중 지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1조원 규모의 지원 재원 마련 방안과 재정 분담 비율도 논의한다.

당초 1조원 재원은 군공항 기부 대 양여 사업비 6천400억원과 시비 1천500억, 국비 2천100억원으로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군공항 이전 부지에 추진되면서 재원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기부 대 양여를 통해 마련하기로 한 6천400억 가운데 부족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분담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구체적인 국비 지원 규모와 재정 분담 비율은 대통령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6자 협의체에서 조율할 예정이다.

특별시는 국비 부담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한편 추가 지방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충당할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특별시 출범 초기 각종 대규모 현안사업에 재정 투입이 집중되고 있어 자체 재원만으로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통합재정지원금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6차 협의체에서 재원 분담 방안이 정리되면 지원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 사업별 재원 배분 등을 심의하게 된다.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를 거쳐 주민투표, 무안군의 유치 신청 절차가 이어진다.

특별시는 오는 11-12월 최종 이전부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변은진 기자

Today

검찰, 장윤기 사형 구형 6면
북구 오방보치아대회 가보니… 7면
김도영 ‘40홈런’ 제물 NC냐 KT냐 16면

공모분야
출품자격 일반부문 – 제한 없음
특별(학생)부문 – 사진에 관심있는 중·고 재학생
출품료 1인당 30,000원 (단, 학생부 출품료 없음)
작품내용 미발표 작품으로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작품
작품규격 컬러, 흑백 11″×14″(장정불요)
접수처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5 삼호센터 8층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연락처 062-234-2323
출품수 4점이내
작품 뒷면에 명제, 주소, 성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일반·학생)기재
접수기간 2026년 10월 14일(수) 도착분
심사일시 2026년 10월 20일(화) 11시
심사장소 광주국제교류센터 강당 (다목적실) 예정
심사발표 2026년 10월 22일(목) 예정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및 광주사협 홈페이지 http://www.kjphoto.or.kr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 및 지상(예정) http://www.kjdaily.com
시상일시 2026년 11월 11일(수) 오후 2시(예정)
시상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예정)/광주매일신문 본사

시상내역
1. 일반 공모 부문
• 대상(1점)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및 부상 200만원
• 최우수상(1점)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및 부상 100만원
• 우수상(2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부상 50만원
• 특선(입선10%이내)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 입선(출품수의 20%이내) 입상작 포함,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2. 특별(학생) 부문
• 대상(1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상장 및 메달
• 우수상(2점)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및 메달
• 특선(5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메달
• 입선(50점 내외)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3. 초대작가상
•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패
*초대작가: 합산 15점 이상 인자(대상 6점, 최우수상 5점, 우수상5점, 특선4점, 입선2점)는 본 사진대전 초대작가로 추대한다.
작품반출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시상식 후 상장과 작품집만 발송함. (단, 광주지역 출품자는 동우회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요망)

기타사항
특전 초대작가 제도 운영 (본 대전에서 총 점수 15점 이상 취득한 자)
본 대전 입상자는 광주매일신문 사진동우회 회원 자격을 부여함. (단, 입상경력 2회 이상)
•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나 주최측에선 수상작에 한하여 도서출판, 홍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상, 입선작의 원본파일을 5일 이내에 성명, 제목을 기재하여 brcom@naver.com으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상권취소됨)
• 수상작과 관련한 초상권 분쟁은 출품자가 책임을 져야 함.
• 초대작가 작품 e-mail 제출 (cjkang2323@naver.com), 출품시 주소, 성명, 명제, 연락처 기재요망

THE 18TH KJ DAILY PHOTO EXHIBITION

CMYK